

이미지 스키마의 은유적 전용에 의한 개념구조 확장에 관한 연구

-일본어와 한국어의 인지미론적 비교 고찰-*

梁慶模**

< 要 旨 >

>

イメージスキーマの隠喩的転用による概念構造の拡張に関する研究

- 日本語と韓国語の比較考察 -

この研究は、人間の主要な認知能力の一つであるイメージスキーマ (image schema)가, 세계를理解し, 概念化するのにどういふふうに使われている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上下><前後><内外>などの空間イメージを対象にして、それらが、日本語と韓国語において、概念化に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るのかをそれぞれ考察し、その共通点と相違点を示そうとしたものである。

考察の結果、両言語は、空間イメージの概念的転用において、かなりの共通点と相違点を同時に見せてくれた。<上下>のイメージスキーマを例にあげると、両言語ともに、<位置の上下>という空間概念だけでなく、<裏と表><地位や身分の上下><能力の差><数量の多寡>などの概念化に用いられているが、日本語の場合にだけ、<上>は、<人の心の状態>や<事項と事項との関係>のような概念領域までにその転移が広がっていて、<下>は<予備的な行為><基をなすもの><勢いの弱い状態><ある行為の終わった直後>などの概念化にまで広がっているのがわかった。

主題語：イメージスキーマ、概念的転用、日本語、韓国語、比較考察

1. 들어가기

이 연구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인지능력의 하나인 '이미지 스키마(image schema)'가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미지 스키마란 말의 형성과 개념화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신체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이미지를, 추상화하고 구조화한 지식 형태의 것을 말하며, 대상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주는 주형(鑄型)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¹⁾.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이 언어 연구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인지언어학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부터이다.

Brugman(1981)은 영어의 'over'가 지니는 다의성을, Lindner(1981)는 영어의 'up, out'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A00399).

** 목포대학교 어문학부 일어일본학전공, 교수, 일본어학

의 다의성을 분석함에 있어, 그들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스키마라는 추상적 구조체를 이용함으로써 서로 명확히 관련짓고, 그것들이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을 형성함을 보여 주었다. Mark Johnson은 그의 저서 The Body in the Mind(1987)에서, 은유(metaphor)를 이미지 스키마의 사상(寫像)으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지 스키마라는 신체적 기반을 가지는 추상적 구조체가, 우리들의 개념, 경험, 언어적 의미에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해 가며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Langacker(1987)는 형태소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문법에 있어서도 스키마라는 추상적 구조체가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 한편 일본어와 관련하여, 山梨正明는 그의 저서 『認知文法論』(1995)에서 일본어에 투영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스키마들을 구체적인 일본어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저서 『認知言語学原理』(1999)의 '4.6.8 사회·문화적 의미의 근원'이라는 절에서 "인지주체로서의 우리들은, 어떠한 사회적(내지는 문화적) 문맥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표상 세계의 층위에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중략) 구체적인 이미지 형성의 층위에서 뿐 아니라, 이미지 스키마의 형성 층위에도 사회·문화적인 시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이미지 스키마의 은유적 사상에 의한 개념적 확장이 일본어와 한국어에서는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점에 착안하여, 공간의 이미지 스키마를 중심으로 그것이 개념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두 언어를 대상으로 고찰·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上下>, <前後>, <内外>의 이미지 스키마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신체나 공간에 관련된 개념 영역 외에 다른 어떤 개념 영역으로 전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언어 표현들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본어와 한국어 두 언어 모두에 대해 병행 실시되며,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제시한다. 두 언어에 대한 이러한 비교를 통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화해 가는 과정이 각 언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上下> <前後> <内外>의 이미지 스키마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 자료를 양 언어에서 각각 추출하였다. 일본어에서는 うえ(上)/した(下), まえ(前)/あと(後)/しろ(後ろ), うち(内)/そと(外)를, 한국어에서는 '위/아래', '앞/뒤', '안/밖(바깥)'을 각각 취하였다³⁾. 이어 이들 표현에 대한 사전에서의 의미기술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표현의 용례들을 사전류 및 기타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용례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대상인 언어 표현들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분석된 의미를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의미 유형들은, 해당 언어 표현과 관련된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 영역에 있어서의 전용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해당 이미지 스키마에 의한 개념구조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上下> 이미지 스키마

2.1 일본어의 경우

일본어에서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 표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명사 うえ(上)와 した(下)를 들 수 있겠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자립적인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연체수식 성분을 필요로 하는 형식명사로서의 쓰임을 보이기도 하며,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하는 조어적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이제 うえ(上)와 した(下)가 나타나는 표현 용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이들이 표현하는 의미 유형과 각 유형에 속하는 용례들을 제시하기로 한다⁴⁾.

1) うえ(上)/した(下)의 의미 유형

うえ(上)

した(下)

- | | |
|----------------------------|-------------------------------|
| ① 玄関から上へ上がる。
上唇, 上齒, 上葉 | 二階は子供部屋, 下は居間。
下押し, 下草, 下腹 |
| ② 湖の上を照らす月
上着, 上紙, 上皮 | ワイシャツの下に下着を着る。
下着, 下萌, 下心 |
| ③ 上の人に話す。
上役 | 下からの要求。
下役, 下男 |
| ④ 腕前が上だ。
上手 | 彼よりは下だ。
下仕事, 下職, 下回り |
| ⑤ 三つ上の兄
上値, 上回る | 私より年が下だ
下支え, 下値 |

위의 자료 ①에서, うえ(上)와 した(下)는 어느 경우나 공간적인 상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うえ(上)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높은 쪽을, した(下)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은 쪽을 나타낸다. 「上葉」는 초목의 위쪽 잎을 의미하고, 「下押し」는 아래쪽으로 누르는 동작을 의미한다. 자료 ②에서 うえ(上)와 した(下)는 사물의 표리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うえ(上)는 물체의 표면을, した(下)는 물체의 이면,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쪽을 나타낸다. 「湖の上」는 호수의 표면을 의미하며, 「ワイシャツの下」는 와이셔츠의 겉면에 가려져 있는 내부를 의미한다. 「上着」는 겉옷을, 「下着」는 속옷을 각각 의미한다. 「下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본심을 의미한다⁵⁾. 자료 ③에서 うえ(上)와 した(下)는 지위나 신분의 상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うえ(上)는 지위나 신분이 높은 쪽을, した(下)는 지위나 신분이 낮은 쪽을 나타낸다. 「上の人」은 지위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며, 「下からの要求」는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부터의 요구를 의미한다. 자료 ④에서는 うえ(上)와 した(下)가 능력의 차이를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다. 즉, うえ(上)는 능력이 좋은 쪽을, した(下)는 능력이 떨어지는 쪽을 나타내는 것이다. 「腕前が上だ」는 기량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의미이며, 「上手」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下仕事」는 기량이 더 낮은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가리킨다. 자료 ⑤에서는 うえ(上)와 した(下)가 수량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고 있다. うえ(上)는 수량이 많은 쪽을, した(下)는 수량이 적은 쪽을 나타낸다. 「三つ上の兄」는 나이가 세 살 더 많은 형으로 해석되며, 「上回る」는 수량이 기준보다 더 많음을 의미하고, 「下値」는 어떤 기준보다 가격이 낮음을 의미한다.

자료 ①~⑤를 통해서, 본고의 관심사인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즉, <공간적 상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이미지 스키마가 <표리 관계>라든지, <지위 혹은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 <수량의 차이>를 개념화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공간 영역과는 성격이 다른 다양한 영역으로 투사되어, 해당 영역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うえ(上)와 した(下)는 자료 ①~⑤를 통해서 살펴본 의미 용법 외에도, 각각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어서 그러한 의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うえ(上)의 또 다른 의미

⑥ 上擦る, 上っ調子

자료 ⑥에서, 「上擦る」는 ‘흥분하거나 너무 긴장하여 동작이나 목소리에 침착함이 없거나’라는 의미를 지니며, 「上っ調子」는 기분에 침착성이 없고 말이나 동작이 신중치 못한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다. ⑥의 예들에서, うえ(上)는 사람의 침착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うえ(上)의 용법을 통해서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した(下)에 의해 어떤 심리적 상태가 표현되는 언어적 예는 찾기 어렵다.

한편, うえ(上)는 연체수식 성분의 수식을 받으며 형식명사로서의 쓰임도 보이는데, 그 의미적 역할도 매우 추상적이다. 다음 자료 ⑦이 그러한 경우이다.

⑦ 身の上の話, 気持の上の圧迫感

見た上で決める。

しかられた上に罰金まで取られた。

자료 ⑦에서 うえ(上)는 어떤 사항과의 관련성을 표현하거나,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의 성립 기반임을, 혹은 어떤 사항에 다른 사항이 더해짐을 표현하거나 한다. 「身の上の話」는 이야기가 신상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見た上で決める」는 보는 행위가 성립한 조건에서 결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다. 「しかられた上に罰金まで取られた」는 꾸중을 들은 데다가 추가로 벌금까지 물었다는 의미이다. 어느 경우나 두 사항간의 관계를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포착하고 있고, 바로 그 점을 うえ(上)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⑦에서의 うえ(上)의 용법을 통하여, <두 사항간의 관계>에 대해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투사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した(下)의 또 다른 의미

⑧ 下書き, 下見, 下相談, 下仕事

⑨ 下味, 下色, 下絵, 下地

⑩ 下色, 下火

⑪ 言う下からまちがえる。

자료 ⑧에서 した(下)는 동사의 명사형이나 동작성 명사의 앞머리에 결합하여, 해당 동작이 예비적인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下書き」는 어떤 문서의 초안을, 「下見」는 예비조사를, 「下仕事」는 사전 준비작업을, 「下相談」은 사전 협의를 각각 의미한다. 자료 ⑨에서 した(下)는 일반 명사 앞에 붙어, 어떤 것의 바탕을 이룸을 표현하고 있다. 「下味」는 소금이나 간장에 간을 들여 만들어진 바탕이 되는 맛을 의미하며, 「下色」는 종이나 천 따위의 바탕 빛깔을, 「下絵」는 본 그림을 위한 밑그림을, 「下地」는 어떤 것의 밑바탕 혹은 본성을 각각 의미한다. 자료 ⑩에서 した(下)는 어떤 것의 기세가 약해진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다.

「下色」는 어떤 것의 쇠퇴한 모습을, 「下火」는 불의 기세가 약해진 상태를 각각 의미하고 있다. 자료 ⑩에서 した(下)는 동사의 연체형 다음에 「下から」의 형식으로 나타나, 어떤 행위가 막 끝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다.

자료 ⑧~⑨를 통해서, 어떤 관련을 가지는 두 동작 혹은 두 사항 사이에서 근저를 이루는 것 혹은 바탕이 되는 것을 <下>로서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동작 혹은 두 사항간의 관계>를 <上下> 이미지 스키마의 투사에 의해 포착하고,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 ⑩을 통해서는 <기세의 강하고 약함>을 상하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세가 강한 상태가 <上>이고, 약한 상태가 <下>이다. 추상적 상태에 대해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투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자료 ⑪을 통해서는 연속하는 두 동작을 상하 관계로서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선행 동작이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료 ⑦에서도 연속적인 두 동작이 상하 관계로 포착되고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見た上で決める」), 이 경우 선행 동작을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 자료 ⑪에서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2.2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에서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 표현으로는 ‘위/아래’를 들 수 있다. ‘위/아래’는 각각 자립적인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복합어의 조어적 성분으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형태가 ‘윗-/웃-/아랫-’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에서는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어떠한 개념적 전용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다.

1) ‘위/아래’의 의미 유형

위	아래
① 나무 <u>위</u> 쪽에 매달린 풍선 윗니, 윗도리, 윗마을	산 <u>아</u> 래로 내려가다. 아랫니, 아랫도리, 아랫마을
② 책상 <u>위</u> 에 놓인 책	겉저고리 <u>아</u> 래에 입는 옷
③ 윗사람, 윗자리, 웃어른	아랫사람
④ 윗누이, 윗사람	아래누이, 아랫사람
⑤ 바둑 실력이 나보다 <u>위</u> 다.	바둑 실력이 나보다 <u>아</u> 래다.
⑥ 윗길	아랫길
⑦ <u>위</u> 에서 언급한 사항	<u>아</u> 래 사항을 준수할 것.

자료 ①에서 ‘위’와 ‘아래’는 공간적인 상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위’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높은 쪽을, ‘아래’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은 쪽을 가리킨다. ‘윗니’는 ‘아랫니’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속해 있다. 자료 ②에서 ‘위’와 ‘아래’는 사물의 표리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위’는 물체의 표면을, ‘아래’는 물체의 이면, 혹은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안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책상 위’는 책상의 표면을 말하며, ‘걸저고리 아래’는 걸저고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안쪽을 말한다. 자료 ③에서 ‘위’와 ‘아래’는 신분 혹은 사회적 지위의 상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위’는 신분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쪽을, ‘아래’는 그것이 낮은 쪽을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 ‘윗사람’은 상대적으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며, ‘윗자리’는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를 뜻한다. 자료 ④에서 ‘위’와 ‘아래’는 수량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고 있다. 수량이 많은 쪽이 ‘위’이고, 수량이 적은 쪽이 ‘아래’이다. ‘윗누이’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누이이며, ‘윗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⁶⁾. 자료 ⑤에서 ‘위’와 ‘아래’는 능력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좋은 쪽이 ‘위’이고, 능력이 떨어지는 쪽이 ‘아래’이다. 자료 ⑥에서 ‘위’와 ‘아래’는 품질의 차이를 표현해 주고 있다. ‘위’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쪽을, ‘아래’는 품질이 떨어지는 쪽을 가리킨다. 품질이 보다 좋은 물건이 나쁜 물건에 비해 ‘윗길’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료 ⑦에서 ‘위’와 ‘아래’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위’는 기준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쪽을, ‘아래’는 기준 시점보다 뒤에 오는 쪽을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앞서 이미 언급한 사항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위/아래’가 표현하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통해서, 한국어에 있어서도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다양한 개념 영역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간적 상하 관계>에 대해서 뿐 아니라 <사물의 표리 관계>, <신분·지위의 차이>, <수량의 차이>, <능력의 차이>, <품질의 차이>,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개념화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아래’의 또 다른 의미

한국어의 ‘아래’는 다음 자료 ⑧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행위나 작용을 나타내는 명사 다 음에 놓여, 그러한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⑧ 독재 정권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
외세의 지배 아래, 주님의 인도 아래

자료 ⑧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일정한 행위나 작용이 가해졌을 때, 그 행위나 작용을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행위나 작용이 가하여지는 대상은 그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행위나 작용 그리고 그것이 가해지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도 공간적인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다른 영역으로 전용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3 <上下>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에 관한 일·한 양 언어의 비교

2.1~2.2를 통해,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서 일본어의 うへ(上)/した(下) 및 한국어의 ‘위/아래’가 각각 어떠한 의미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용

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 용법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두 언어 모두에서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공간 영역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양한 개념 영역에 걸쳐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上下>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의 양상이 두 언어 모두에서 상당 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각 언어의 독자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물의 표리 관계>, <신분·지위의 차이>, <수량의 차이>, <능력의 차이>,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의 개념화에 있어서, 두 언어 모두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표면>, <신분·지위가 높음>, <수량이 많음>, <능력이 좋음>, <시간적으로 앞섬>은 <上>으로, <이면>, <신분·지위가 낮음>, <수량이 적음>, <능력이 떨어짐>, <시간적으로 나중임>은 <下>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다.

(2) 일본어의 경우,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개념화하는 데 전용되고 있다. 몹시 흥분하거나 긴장하여 침착하지 못한 상태를 平靜한 상태에 대하여 <上>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어의 경우, <두 사항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이용하여 포착하고 있다. 즉,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두 사항을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A에 B가 추가될 때, A와 B를 상하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보거나, 또한 A가 B에 대한 선행 조건, 근거, 혹은 배경이 될 때, A와 B가 상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A는 물건, 행위, 사건 중 어느 것일 수 있고, B 역시 그러하다.)

(4) 일본어에서는 상대적인 <기세(氣勢)의 차이>를 포착함에 있어서도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것의 기세가 약해진 상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下>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5) 일본어에서는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는 두 동작 혹은 사건에 대해서도 상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어떤 동작이 끝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동작이 이어질 때, 두 동작은 상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見た^上で決める」와 같은 표현 참조). 거의 동시적으로 이어지는 두 동작에 대해서도 상하 관계로서 포착하고 있다(「言^下からまちがえる」와 같은 표현 참조)

(6) 일본어에서는 마음의 일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上下> 이미지 스키마를 전용하고 있다.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을 <下>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下^下思い」, 「下^下心」와 같은 표현 참조). 어떤 물건의 표면과 이면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파악하는 것처럼, 마음의 드러나지 않는 이면을 <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한국어에서는 <시간>이나 <마음>의 영역에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령, '*잘 생각한 위에 결정하다'나 '*말하는 아래서 잘못을 저지르다'와 같은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그런 사실이 뒷받침된다. 한국어 '아래'에는, '아래저고리'에 서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안쪽>을 표현하는 용법이 있기는 하나, '*아래생각'이나 '*아래마음' 따위의 표현은 없다는 점에서 <上下> 이미지 스키마가 <마음>의 영역을 포착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대신, '속마음', '속셈' 등 '속'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3. <前後> 이미지 스키마

3.1 일본어의 경우

일본어에서 <前後> 이미지 스키마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 자료로서는 まえ(前)와 あと(後)/うしろ(後ろ)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자립 명사로서 쓰인 경우, 연체수식 성분을 수반하는 경우, 조어 요소로서 쓰인 경우 등 다양한 예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얻어낸 의미의 유형을 각각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의미 유형을 통해서, <前後> 이미지 스키마가 어떠한 개념적 전용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겠다.

1) まえ(前)/あと(後)/うしろ(後ろ)의 의미 유형

<u>まえ(前)</u>	<u>あと(後)/うしろ(後ろ)</u>
① <u>まえ</u> へ進む。 前掛け, 前屈み	<u>あと</u> に引けない立場。 後ずさり, 後返り, 後ろ姿
② 駅の <u>まえ</u> 前桐, 前下がり	車の後押し, 屏風の後ろ
③ 食事의 <u>まえ</u> に手を洗う。 前祝い, 前払い, 前触れ	三年 <u>あと</u> のことだった。 後味, 後始末
④ 彼は私より三人 <u>まえ</u> に並んでいた。	<u>あと</u> の列車

자료 ①에서 まえ(前)는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얼굴이 있는 쪽이나,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쪽의 공간을 가리키며, あと(後)는 신체의 등이 있는 쪽이나, 그 쪽의 공간을 의미한다. 「まえへ進む」는 시선이 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前掛け」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몸 앞쪽 허리춤에 두르는 천이다. 「後ずさり」는 앞을 향한 채 뒤로 물러남을 뜻하며, 「後ろ姿」는 사람의 뒷모습을 뜻한다. 자료 ②에서 まえ(前)는 어떤 물체의 정면이나 그 앞쪽의 공간을 의미하며, あと(後)는 물체의 이면이나 그 뒤쪽의 공간을 의미한다. 「駅の前」는 역의 정면 앞 공간을 말하며, 「前桐」는 가구 따위의 정면만을 오동나무로 만든 것을 말한다. 「車の後押し」는 차의 이면 쪽, 즉 뒷부분을 미는 것이며, 「屏風の後ろ」는 병풍 뒤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가리킨다. 자료 ③에서 まえ(前)와 あと(後)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다. まえ(前)는 기준 시점 이전을, あと(後)는 기준 시점 이후를 각각 의미한다. 「食事のまえ」는 식사하기 전을 뜻하며, 「前祝い」는 제 날짜에 앞서 축하해 줌을 뜻한다. 「三年あと」는 기준 시점으로부터 3년 후의 뜻이며, 「後味」는 어떤 것을 먹은 후 입안에 남는 맛을 뜻한다. 자료 ④에서 まえ(前)와 あと(後)는 순서의 의미를 지닌다. まえ(前)는 순서에 있어 먼저임을, あと(後)는 순서에 있어 나중임을 의미한다. 「私より三人まえに並んでいた」는 순서 상 세 사람 앞에 서있다는 것이며, 「後の列車」는 시간적 순서에 있어 나중에 오는 열차를 가리킨다. 순서는 공간적인 것일 수도, 시간적인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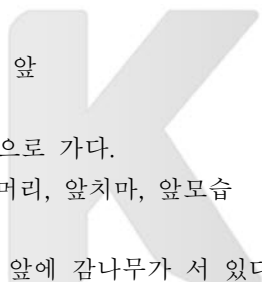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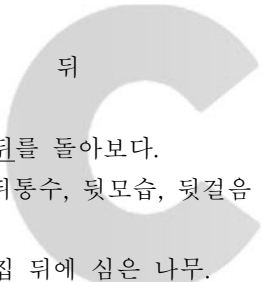
자료 ①~④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나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前

後> 이미지 스키마가, 신체나 공간 이외의 개념 영역, 즉 <시간>이나 <순서>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에도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준 시점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적 관계에 <前後> 이미지 스키마를 투사함으로써 그것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기준 시점 이전은 <前>으로, 기준 시점 이후는 <後>로 개념화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인 순서나 시간적인 순서의 배치에 있어서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도 <前後> 이미지 스키마가 투사되고 있다. 순서에 있어 먼저인 쪽을 <前>으로, 나중에 오는 쪽을 <後>로 개념화하고 있다. <前後> 이미지 스키마가 <신체>, <공간>, <시간>, <순서>의 개념 영역들에 두루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3.2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에서 <前後> 이미지 스키마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 자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과 ‘뒤’이다. 이들이 쓰이고 있는 용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의미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앞/뒤’의 의미 유형

	
<p>앞</p>	<p>뒤</p>
<p>① 앞으로 가다. 앞머리, 앞치마, 앞모습</p> <p>② 집 앞에 감나무가 서 있다. 역 앞, 앞면, 앞마당, 앞산</p> <p>③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p> <p>④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간다.</p>	<p>뒤를 돌아보다. 뒤통수, 뒷모습, 뒷걸음</p> <p>집 뒤에 심은 나무. 건물 뒤, 뒷마당, 뒤뜰</p> <p>한 시간 뒤에 보자. 뒤풀이, 뒷날, 뒷맛, 뒷일</p> <p>그는 나보다 한참 뒤일세.</p>

자료 ①에서 ‘앞’은 사람의 신체에서 얼굴이 있는 쪽이나, 시선이 향하는 쪽의 공간을, ‘뒤’는 사람의 등이 있는 쪽이나 그 쪽의 공간을 의미한다. 자료 ②에서는, ‘앞’은 어떤 물체의 정면 혹은 그 앞쪽 공간을, ‘뒤’는 물체의 이면 혹은 그 뒤쪽 공간을 의미한다. 자료 ③에서는, ‘앞’은 기준 시점 이전을, ‘뒤’는 기준 시점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를 지닌다⁷⁾. 자료 ④에서 ‘앞’은 순서 상 먼저임을, ‘뒤’는 순서 상 나중임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한국어 자료 ①~④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한국어에 있어서도 <前後> 이미지 스키마가 신체나 공간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시간>과 <순서>의 개념 영역에도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준 시점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前後> 이미지 스키마의 투사에 의해 포착하고 있으며, 순서상의 선후 관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앞’의 또 다른 의미

한국어에서 ‘앞’은 자료 ①~④를 통해 살펴 본 의미 유형 외에, 아래 ⑤에 제시되는 바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즉, ‘기준 시점 이후’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③번 자료에서 ‘앞’이 표현하는 의미인 ‘기준 시점 이전’, 즉 ‘과거’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오히려 ③번 자료의 ‘뒤’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인 ‘기준 시점 이후’, 즉 ‘미래’와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먼 앞을 내다보고 산다.
앞으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기준 시점 이전, 즉 과거를 <前>으로서 파악하기도 하고, 기준 시점 이후, 즉 미래를 <前>으로서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은 아래 ⑥에서처럼 ‘뒹’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며, ⑦에서처럼 ‘앞서다’의 형태로 쓰여 ‘남보다 능력이 뛰어난’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⁸⁾

- ⑥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땅.
제 앞은 한다.
- ⑦ 그 사람은 많은 면에서 나보다 앞선다.

⑥~⑦의 자료를 통해, 前後 이미지 스키마가 <뒹>이라든가 <능력>과 같은 좀더 추상적인 영역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뒤’의 또 다른 의미

‘뒤’ 또한 앞서 제시한 자료 ①~④에서의 의미 유형 외에, 다음 ⑤~⑨에서와 같은 몇 가지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⑤ 그 사건 뒤에 숨은 이야기.
뒤에 믿는 게 있는 모양이다.
뒷거래, 뒷조사, 뒷돈, 뒷전
- ⑥ 사람은 항상 뒤가 깨끗해야 한다.
- ⑦ 화는 잘 내지만 뒤는 없는 사람이다.
- ⑧ 그 사람보다 바둑 실력이 뒤떨어진다.
- ⑨ 뒤를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많다.

자료 ⑤에서 ‘뒤’는 감춰진 부분이나 배후를 표현하고 있다. 자료 ⑥에서는 흔적이나 결과

를, 자료 ⑦에서는 감정의 남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 ⑧에서는 ‘뒤떨어지다’와 같은 표현으로 쓰여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하고 있다. 자료 ⑨에서는 ‘뒤’가 과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료 ⑤~⑨에서 ‘뒤’가 표현하는 의미들을 통해, 한국어에서 <前後> 이미지 스키마가 <신체>, <공간>, <시간>, <순서>의 개념 영역 외에도, <사물의 어떤 양상>, <능력>, <감정> 등의 개념 영역으로도 전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前後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에 관한 일·한 양 언어의 비교

<前後>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 양상에 있어 일본어와 한국어가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은, まえ(前)/あと(後)/しろ(後ろ)의 ①~④에서의 의미, ‘앞/뒤’의 ①~④에서의 의미를 서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신체의 앞과 뒤>, <시선이 향하는 쪽의 공간과 등 쪽으로의 공간>, <물체의 정면과 이면>, <물체의 정면 쪽 공간과 이면 쪽 공간> 등 자신의 신체나,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나 물체와 같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기준 시점 이전과 기준 시점 이후>와 같은 시간 개념, <순서 상 먼저인 것과 나중인 것>과 같은 순서 개념 등 추상적인 개념 영역들에 대해서도 <前後> 이미지 스키마에 의한 이해와 개념화가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前後> 이미지 스키마의 전용 양상에 있어 두 언어는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는데, 즉 한국어에서는 <기준 시점 이전>만을 <前>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 시점 이후>를 개념화하기도 하는데 비해(‘앞’의 ⑤번 의미 참조), 일본어에서 <기준 시점 이전>만을 <前>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또 한 가지 차이를 보이는 점은, 한국어에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뛰어남>을 <前>으로 개념화하는 데 비해(‘앞’의 ⑦번 의미 참조),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前後>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에 있어서 두 언어가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점으로, 한국어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감춰진 부분>이나, 어떤 사건의 <배후>,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짐>, <감정의 양극> 등을 <後>로 개념화하고 있음에 비해(‘뒤’의 ⑤, ⑦, ⑧번 의미 참조),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적어도 사전상의 기술로는, 일본어에서는 ‘あと(後)’를 그러한 의미들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어에서 <後>는 <기준 시점 이후>를 개념화할 뿐 아니라, <기준 시점 이전>을 개념화하기도 하는데 비해(‘뒤’의 ⑨번 의미 참조). 일본어에서는 <기준 시점 이후>만을 개념화하고 있다.

4. <内外>의 이미지 스키마

<内外> 이미지 스키마를 반영하고 있는 일본어의 언어 자료로서는 うち(内)/そと(外)를 들 수 있고, 한국어의 언어 자료로는 ‘안/밖(바깥)’을 들 수 있다. 이들 언어 자료의 용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것들이 표현하는 의미 유형을 찾아내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어떠한 개념 영역들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것을 개념화에 이용하는 양상이 일본어와 한국어 두 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4.1 일본어의 경우

- 1) うち(内)/そと(外)의 의미 유형

うち(内)	そと(外)
① あたり一帯停電で, <u>内</u> も外も真っ暗だ。 内庭, 内湯	窓の <u>外</u> を眺める 外風呂, 外湯
② 包帯の <u>内</u> 側に血がにじんでいる。 うちポケット, 内懐, 内法	<u>外</u> を飾りたがる人間 外法, 外見
③ 内回り, 内堀	外回り, 外堀
④ <u>うち</u> の社長はまだ出ていない。 内祝い, うちづら, 内回り, 内輪	そとづら, 外回り

자료 ①에서 うち(内)와 そと(外)는 공간적인 내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즉, うち(内)는 어떤 한정된 공간의 내부를, そと(外)는 한정된 공간의 경계 밖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内庭」는 집 안에 만들어진 뜰을 말하며, 「外湯」는 실외에 설치된 욕실을 말한다. 자료 ②에서 うち(内)와 そと(外)는 어떤 물체의 이면과 표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うち(内)는 물체의 이면을, そと(外)는 물체의 표면을 각각 가리킨다. 「うちポケット」는 옷의 이면에 만들어 놓은 주머니이며, 「内法」는 관(管) 따위의 이면과 이면 사이의 치수를 의미한다. 「外見」는 표면상의 모습을 의미한다. 자료 ③에서 うち(内)와 そと(外)는 어떤 영역의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과 먼 곳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うち(内)는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을, そと(外)는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을 각각 의미한다. 「内回り」는 환상(環狀)의 복선 철로에서 안쪽의 노선을 말하며, 「外回り」는 바깥쪽의 노선을 말한다. 자료 ④에서 うち(内)와 そと(外)는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의 내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うち(内)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영역의 내부, そと(外)는 그 영역의 범위 밖을 각각 의미한다. 「うちの社長」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장을 가리키며, 「内祝い」는 집안사람들끼리의 축하 행사를 말한다. 「そとづら」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영역 밖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뜻한다.

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うち(内)와 そと(外)의 의미 유형들을 통해서,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한정된 공간의 내부/한정된 공간의 경계 밖>, <중심에서 가까운 영역/중심에서 먼 영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대해서 뿐 아니라, <물체의 표면/물체의 이면>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적 영역/자신이 속한 사회적 영역의 밖>이라는 개념 영역으로도 전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うち(内)의 또 다른 의미

うち(内)는 자료 ①~④에서 제시된 의미 유형 외에, 다음 ⑤~⑧에서와 같은 또 다른 의미들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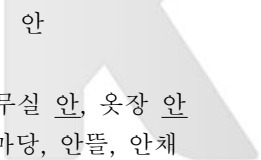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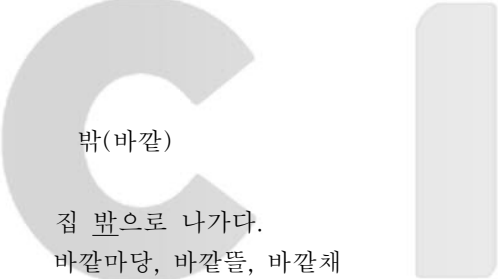
- ⑤ 二, 三日のうちにお訪ね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無意識のうちに立ち上がったのだから。

- ⑥ 二万人の出場者のうち一万人くらいが日本人であるということだった。
ラーメンを作るのが得意だなんて, そんなの料理のうちに入らないよ。
- ⑦ 内高, 内劣り
- ⑧ うちに秘めた情熱。 内気

자료 ⑤는 うち(内)가 시간의 범위를 한정짓는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다. 「二、三日のうちに」는 ‘이삼일 안으로’라는 의미이다.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시간>의 개념 영역으로 전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자료 ⑥에서 うち(内)는, 수량 혹은 종류를 나타내는 말과 어울려, <어떤 집합 혹은 범주의 내부>를 표현하고 있다. 「料理のうちに入らない」는 ‘요리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예들은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집합>이라든가 <범주>와 같은 추상적 개념 영역에도 전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⑦과 ⑧에 제시된 うち(内)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마음속>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2 한국어의 경우

1) ‘안/밖(바깥)’의 의미 유형

 <p>안</p>	 <p>밖(바깥)</p>
① 사무실 <u>안</u> , 옷장 <u>안</u> 안마당, 안뜰, 안채	집 <u>밖</u> 으로 나가다. 바깥마당, 바깥뜰, 바깥채
② 명주로 <u>안</u> 을 댄 저고리. 안감, 안벽	감정을 <u>밖</u> 으로 드러내다.
③ 안댁, 안부모, 안사람, 안사돈	바깥부모, 바깥사돈, 바깥양반

자료 ①에서 한국어의 ‘안’과 ‘밖(바깥)’은 한정된 공간의 내부와 그 공간의 경계 밖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자료 ②에서 ‘안’은 물체의 이면 혹은 겉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을, ‘밖’은 물체의 표면 혹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곳을 의미하고 있다. 자료 ③에서는 ‘안’과 ‘밖(바깥)’은 성별(性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안’은 여자 쪽을, ‘밖(바깥)’은 남자 쪽을 각각 의미한다.

자료 ①~③을 통해서, 한국어에서는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한정된 공간의 내부/한정된 공간의 경계 밖>이라는 공간 개념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체의 이면/물체의 표면>, 나아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곳>과 같은 개념적 대립에 대해서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자 쪽/남자 쪽>과 같은 개념적 대립에도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전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 ‘안’과 ‘밖(바깥)’의 또 다른 의미

‘안’은 앞서 본 자료 ①~③에서의 의미 유형 외에, 다음 ④~⑤에서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④에서 ‘안’은 한정된 시간의 범위 내를 표현하고 있으며, ⑤에서 ‘안’은 집합의 내부를 나타내고 있다.

④ 두 시간 안에 일을 마치다.

⑤ 이 안에서 고르자.

‘밖(바깥)’ 역시 자료 ①~③에서의 의미 유형 외에, 다음 ④~⑤에서와 같은 의미 용법을 가진다. ④에서 ‘밖’은 자신의 사회적 영역 밖을 의미하며, ⑤에서는 ‘밖’이 범위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을 의미한다.

④ 오늘 저녁식사는 밖에서 할 것 같아.

⑤ 상상 밖의 일.

그렇게 할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안’이 표현하는 ④~⑤번의 의미를 통해서,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시간>이나 <집합>과 같은 추상적 개념 영역에까지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밖(바깥)’이 나타내는 ④~⑤번의 의미를 통해서도,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또한 <사회적 영역>이라든가 <범위>와 같은 추상적 개념 영역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内外>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에 관한 일한 양 언어의 비교

<内外> 이미지 스키마의 개념적 전용 양상에 있어 일본어와 한국어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우선,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한정된 공간의 내부와 그 공간의 경계 밖>, <물체의 이면과 그 표면>과 같은 관계를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언어가 공통적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여자 쪽과 남자 쪽>이라는 성별 대립 관계를 개념화하는 데 전용되고 있음에 비해(‘안/밖’의 자료 ③번 의미 참조), 일본어에서는 그러한 전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영역과 자신의 사회적 영역 밖>이라는 관계를 <内外> 이미지 스키마를 투사하여 개념화하고 있는데 비해(うち(内)/そと(外)의 자료 ④번 의미 참조), 한국어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영역>이라는 개념을 <内>로 파악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사회적 영역 밖>에 대해서는 <外>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밖(바깥)’의 자료 ④번 의미 참조). 한편, 두 언어 모두에서 <한정된 시간의 내부>, <집합의 내부>를 <内>로서 개념화하고 있지만(うち(内)의 자료 ⑤~⑥번 의미, ‘안’의 자료 ④~⑤번 의미 참조), 일본어에서는 <内>로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마음속>을 개념화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전용을 찾아볼 수 없다(うち(内)의 ⑦~⑧번 의미 참조)¹⁰⁾.

5. 결론

이상, 일본어와 한국어의 일정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이미지 스키마의 전용 양상이 두 언어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고찰해 보았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공간 관련어, 그 중에서도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표현 의미를 분석하고,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공간 이미지 스키마의 다른 개념 영역으로의 전용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개념적 전용 양상에 있어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적하였다.

<上下>의 이미지 스키마는 두 언어 모두에서, <위치의 상하>라는 공간적 개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결과 속>, <지위나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 <수량의 차이>를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어에서 <上>은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관계>와 같은 개념 영역에까지 그 전이가 확장되고 있으며, <下>는 <예비적인 행위>, <바탕을 이루는 것>, <기세가 약한 상태>, <어떤 행위가 끝난 바로 뒤> 등과 같은 개념에까지 이용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前後>의 이미지 스키마는 두 언어 모두에서 <공간>, <시간>, <순서>의 개념에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前>은 맥락에 따라 <기준시 이전> 혹은 <기준시 이후>를 개념화하며, 또한 <능력이 더 뛰어남>을 개념화하는 데 특징이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 <後>는 <감춰진 부분, 배후>, <능력이 떨어짐>, <감정의 남은 것> 등을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기준시 이후>뿐 아니라 <기준시 이전>을 개념화하기도 한다. <内外>의 이미지 스키마는, 두 언어 모두에서 <한정된 공간의 내부/한정된 공간의 경계 밖>, <물체의 내부/물체의 표면>을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여자 쪽/남자 쪽>을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에 비해,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영역/자신의 사회적 영역 밖>을 <内外> 이미지 스키마를 이용하여 개념화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영역>이라는 개념에 <内>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사회적 영역 밖>이라는 개념에 대해 <外>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언어 모두에서 <内>가 <한정된 시간의 내부>, <집합의 내부>를 개념화하고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内>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마음속>을 개념화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전용을 볼 수 없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들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경험, 주변 환경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경험 등 가장 기초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형성되는 이미지 스키마가, 다른 영역으로의 전용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있어 언어권 혹은 문화권에 따라 공통적인 면도 있고, 차이를 보일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注】

- 1) 辻 幸夫編(2002) 『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事典』 研究社 p.13 참조.
- 2) 이미지 스키마에 대한 선행 연구의 요약은 谷口一美 (2003) 『認知意味論の新展開メタファーとマトニミー』 研究社 pp.45-52 참조.
- 3) 물론 <上下>, <前後>, <内外>의 이미지 스키마가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언어 자료의 의미에만 반영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라든가, 어떤 표현

현들 속에서도 이들 이미지 스키마가 반영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 4) 이하 제시되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예문, 예어들은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사전류에서 발췌된 것들로, 이들의 출전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
- 5) 마음은 유형적인 개체는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일면’을 ‘물체의 이면’에 견준 표현이 「下心」라 할 수 있겠다.
- 6) ‘윗사람’은 상대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 7) 한국어에서 ‘앞’은 시간적 의미로서는 그 쓰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어에서 「まえ」가 연체수식절을 받아 시간접속의 부사절을 구성하는 데 활발히 쓰이고 있음에 비해, 한국어에서 ‘앞’은 그러한 용법을 가지지 않으며, 대신 한자어 ‘전(前)’이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된다. 가령, 「結婚するまえに」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결혼하기 전에’이며, ‘*결혼하기 앞에’와 같은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 8) 한국어에서 ‘앞’이 독립적 명사로 쓰여, ‘능력이 더 뛰어난’을 의미하기는 어려운 듯이 보인다. 가령, ‘?영희의 영어 실력이 철수보다 더 앞이다.’와 같은 표현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9) まえ(前)가 <기준 시점 이후>를 의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적어도 사전상의 기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 10) 한국어에서는, <마음>과 관련해서는 ‘속’이란 표현을 많이 쓰며, ‘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듯하다. ‘속이 좋은 사람’, ‘속이 없다’, ‘속을 썩이다’ 등.

【참고 문헌】

- 河上誓作(1996) 『認知言語学の基礎』 研究社出版
 杉本孝司(1998) 『意味論2-認知意味論』 くろしお出版
 砂川有里子(1998) 『日本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谷口一美(2003) 『認知意味論の新展開』 研究社
 辻 幸夫訳(John R. Taylor著)(1996) 『認知言語学のための14章』 紀伊国屋書店
 編(2002) 『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事典』 研究社
 卷下吉夫・瀬戸賢一(1997) 『文化と発想とレトリック』 研究社出版
 山梨正明(1995) 『認知文法論』 ひつじ書房
 (2000) 『認知言語学原理』 くろしお出版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 이 기우(역)(Lakoff, George 저)(1994)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新明解国語辞典』 第四版(1989) 三省堂
 『大辞林』 (松村 明編)(1988) 三省堂
-
- “동아새국어사전”(1990) 동아출판사
 “일본어 한자 읽기”(1988) 해문출판사

< 요 지 >

이미지 스키마의 은유적 전용에 의한 개념구조 확장에 관한 연구

-일본어와 한국어의 인지의미론적 비교 고찰-

이 연구는 인간의 중요한 인지능력의 하나인 이미지 스키마(image schema)가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는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上下> <前後> <内外>와 같은 공간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이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어서 개념화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각각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上下>의 이미지 스키마는 두 언어 모두에서, <위치의 상하>라는 공간적 개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결과 속>, <지위나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 <수량의 차이>를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어에서 <上>은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사향과 사향 간의 관계>와 같은 개념 영역에까지 그 전이가 확장되고 있으며, <下>는 <예비적인 행위>, <바탕을 이루는 것>, <기세가 약한 상태>, <어떤 행위가 끝난 바로 뒤> 등과 같은 개념에까지 이용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前後>의 이미지 스키마는 두 언어 모두에서 <공간>, <시간>, <순서>의 개념에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前>은 맥락에 따라 <기준시 이전> 혹은 <기준시 이후>를 개념화하며, 또한 <능력이 더 뛰어난>을 개념화하는 데 특징이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 <後>는 <감춰진 부분, 배후>, <능력이 떨어짐>, <감정의 남은 것> 등을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기준시 이후>뿐 아니라 <기준시 이전>을 개념화하기도 한다. <内外>의 이미지 스키마는, 두 언어 모두에서 <한정된 공간의 내부/한정된 공간의 경계 밖>, <물체의 내부/물체의 표면>을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内外> 이미지 스키마가 <여자 쪽/남자 쪽>을 개념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에 비해,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영역/자신의 사회적 영역 밖>을 <内外> 이미지 스키마를 이용하여 개념화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영역>이라는 개념에 <内>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사회적 영역 밖>이라는 개념에 대해 <外>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언어 모두에서 <内>가 <한정된 시간의 내부>, <집합의 내부>를 개념화하고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内>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마음속>을 개념화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전용을 볼 수 없다.

▣ 양경모(梁慶模)

목포대학교 어문학부 일어일문학전공 교수
534-72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061-450-2162
gmyang@mokpo.ac.kr

- 투 고 일: 2005년 12월 5일
- 심사개시: 2005년 12월 25일
- 심사완료: 2006년 1월 25일